



사랑의 김치 담그기

3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빛고을사랑봉사단 회원 200여명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를 열고 소원된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를 담그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참가자들이 담근 1000kg의 김치는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16가정과 사회복지시설 8곳에 전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5개 분야 교부세 40억 확보...역대 최고성적

광주시가 2011년 정부합동평가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총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합동 평가는 정부 24개 부처에서 제시한 9개 분야 110개 지표, 313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광주시는 일반 행정과 지역경제, 지역개발, 안전 관리, 종점과제 등 총 5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사회복지와 환경산업분야는 '나'등급, 그리고 보건위생과 문화관광분야는 '다'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3개 과제, 2009년 4개 과제, 2008년 1개 과제 그리고 2007년 2개 과제에서 가등급을 받는데 그쳤었다.

정부합동평가는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정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꿀고루 높은 성적을 거두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광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데

대해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 '창조시정'을 기치로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을 수행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강운태 시장<사진>은 "앞으로 시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예산 또 날치기에 물힐라

대치정국 심화...내년 국고 확보 비상

MB정부 마지막에 영남쏠림도 우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국한 대치로 지난 3년 연속 이어진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여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거대여권의 입김에 따라 영남 등 특정지

역의 예산 편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준안의 강행 처리로 과정을 겪을 경우, 이는 곧바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되풀이됐던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지난 3년 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광주·전남 현안 사업 예산이 대거 물거품이 되면서 지역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분리 대응해 올해만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철저히 반영시키고 정부와 여당의 핵심사업 예산을 압박하면서 지역 예산을 쟁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영남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대 여권이 힘을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형님 예산'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재정 年187억씩 등록금으로 충당

감사원, 35개 대학 감사...10년만에 등록금 2배 올라

대학들이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는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대학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2배 가량 뛰 것

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전남대·조선대 등 전국 35개(사립 29·국립 6) 주요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을 꼽았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공립대

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균거나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지난해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주인 교비회계(사립)과 기성회회계(국·공립)가 42%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3년 완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증가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에서 4904억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648억원 등 총 6552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학별로 연 평균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알림

농촌사랑 자전거축제 내일 열립니다

11월 5~6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 ▶ 농수축산물 판매장 운영=5·6일 오후 8시까지
- ▶ 거북이 자전거 행진=5일 오후 2시 출발
- ▶ 로드레이싱대회=6일 오전 8시30분 출발

주최 : 광주일보사·광주광역시·전라남도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마사회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인 상식 그린피 50% 할인, 연2회 그린피 면제, 단 1회 1회 18홀 기준)
 -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동반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징정회원 1인 준회원 면제)
 - 무기명카드 1대 할인 : 그린피 50% 할인(연 70회 사용, 1회 1회 사용)
- ※ 계약시 : 정회원면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정회원 2인 : 그린피 50% 할인(연 60회 사용, 1회 1회 사용)
 - 무기명카드 2대 할인 : 그린피 50% 할인(연 70회 사용, 1회 1회 사용)
- ※ 계약시 : 정회원면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 VIP회원 및 해피니스CC 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동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좌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인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